

“악성코드 꼼짝마!” AI 보안은 기본... 딥러닝 펀드까지

코스닥 상장 기업탐방

이스트소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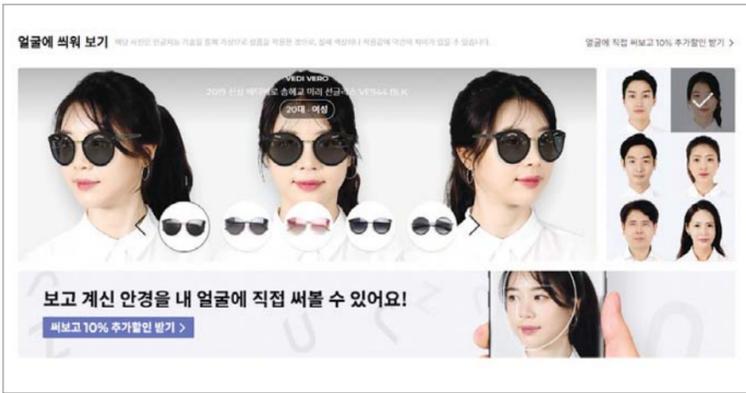
전문가 25명, 전세계 악성코드 분석
딥러닝 기술로 방대한 양 연구 가능
신규사업에도 AI 알고리즘 도입

‘알약’ ‘알집’ 등으로 유명한 이스트소프트. 이 회사의 서울 서초구 본사 1층에 위치한 보안 대응센터에는 첩보영화에서 본 듯 한 전광판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AI(인공지능) 시큐리티 프로그램인 ‘쓰렛 인사이드(Threat Inside)’가 전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잡아야 할 악성코드를 전면 벽에 걸린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대응센터에는 25명의 보안 분석가들이 전 세계에서 포착되는 악성코드를 연구한다.

작년 10월에 출시된 쓰렛 인사이드는 AI 딥러닝을 통해 단순히 악성코드를 탐지·치료할 뿐만 아니라 악성코드를 판별하고 분류해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솔루션 프로그램이다.

쓰렛 인사이드 문종현 대응센터장은 “악성코드가 수십수만가지가 나오는데 보안 분석가들이 손으로 분석하려면 하루에 2~3개밖에 분석을 못 하지만 딥러닝 기술이 분석하면 훨씬 많은 양을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약 1400만 대의 PC에 깔린 ‘알약’이 수집한 악성코드 데이터베이스를 쓰렛 인사이드의 인공지능 딥러닝이 분석하면 악성코드가 어디서 시작돼서 어떤 경로로 유입됐는지, 어떻게 보안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기존 백신 프로그램인 알약이 개인 사용자의 악성 코드를 탐지·삭제하는 역할을 했다면 쓰렛 인사이드는



이스트소프트의 가상 피팅 안경 쇼핑몰 ‘라운드’

/라운드 홈페이지

기업의 전산, 보안 담당자에게 제공하는 B2B, B2G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스트소프트 김진욱 재무전략실 팀장은 “AI 보안 프로그램인 쓰렛 인사이드가 올해 대표 주력사업”이라고 밝혔다.

◆기존 사업에 AI 입혀 전문 기업 도약

1993년 설립된 이스트소프트는 AI(인공지능) 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2016년까지는 알툴즈나 알집, 알약 등의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이었다. ▲알툴즈 소프트웨어 ▲알약으로 대표되는 보안사업 ▲썬닷컴으로 대표되는 포털사업 ▲카발로 대표되는 게임 산업이 주요 사업이었다.

3년 전 정상원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사업의 기치로 내걸었다. 정 대표가 취임하면서 R&D(연구·개발)을 시작해 기존 사업에 하나 하나 AI 기술을 입히기 시작했다. 2016년 당시 ‘알과고’가 등장했기에 외부에서 이스트소프트의 행보가 꽤 뜨거워 보였지만, 정 대표는 원래 인공지능과 딥러닝에 관심이 많아 TF를 꾸려 연구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스트소프트는 AI 기술 중에서도 딥러닝과 사물을 인식해 영상 인식 처리하는 비전 기술에 집중한다. 인공지

능 연구개발을 위해서 사내에 AI 기술 연구소인 ‘AI 플러스 랩’을 설립했다. 현재 부설 연구소에서 현재 관련 AI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자회사에 공급한다. 이를 통해 사업에는 기존 제품에 AI 관련 기능을 넣어서 제품을 고도화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

알약으로 대표되는 보안사업에 AI를 덧붙여 쓰렛 인사이드 개발하고, 썬닷컴의 가짜뉴스를 찾는 AI 알고리즘을 도입하는 등 눈에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 인공지능을 덧붙이고 있다.

◆신규 사업 ‘3총사’로 올해 수익 기대

인공지능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변모하면서 이스트소프트는 3가지 신규 사업을 내놨다. ▲안경 커머스 ‘라운드’ ▲자산운용사인 ‘엑스포넨셜 자산운용’ ▲AI 컨설팅 사업이다.

지난해 5월 출시된 ‘라운드(round)’는 AI 기술이 적용된 가상 피팅 안경 쇼핑몰이다. 라운드 앱에서 사진을 찍으면 원하는 안경을 가상 피팅할 수 있다. 라운드는 미국의 ‘와비파커’라는 안경 스타트업에 벤처마케팅해서 인공지능 비전 기술을 접목해 개발했다. 직접 매장에 가지 않고 안경을 살 수 있고, 가격도 투명하게 전체 공개해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서울 서초구 이스트소프트 본사의 이스트소프트 시큐리티 보안 대응센터.

/배한님 기자



서울 서초구 이스트소프트 본사. /배한님 기자

김진욱 팀장은 “초기 매출액은 18억 정도였고, 현재 연 매출이 32억원 정도로 점점 상승하는 중”이라며 “비슷한 비율로 매출이 상승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딥러닝 기술로 투자 알고리즘을 분석해 AI 펀드를 출시한 ‘엑스포넨셜 자산운용’도 최대 32%까지 수익률을 기록했다. 빠르면 연내로 100% AI가 투자하는 펀드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AI 컨설팅 사업에서는 식자재 유통 회사인 ‘삼성 웰스토리’에서 성과를 거

뒀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발주하던 식자재 유통을 이스트소프트의 AI 솔루션이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발주한다. 이와 관련해 2차 확장 사업도 하고 있고, 레퍼런스도 늘고 있다.

AI 기술 투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결실을 맺어 실체화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스트소프트의 2018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63억 4000만원 증가해 10.8% 매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흑자 전환했다. 가상피팅 안경 쇼핑몰 ‘라운드’ 매출 상승으로 E-커머스 분야에서도 전년 대비 매출액이 168.9% 성장했다.

김 팀장은 “기존 사업 분야가 고른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온라인 안경 커머스 등 AI 기술을 접목한 신규사업의 매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며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스트소프트의 자회사이자 줌인터넷은 지난 2월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해 오는 6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줌인터넷은 국내 포털 사이트 내 검색 점유율 3위인 검색 포털 ‘썬닷컴’을 필두로 인공지능(AI) 앱과 블로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정보기술(IT) 기업이다.

/배한님 기자 ericbae1683@metroseoul.co.kr

하만, 글로벌 車업계서 잇따라 ‘리브콜’

삼성전자, 실적 기여 비중 확대 기대

하만이 전장 사업 성과를 가시화하면서 실적 향상 기대감도 부풀어 오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하만은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19 상하이 국제 모터쇼’에서 자동차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 4건을 연달아 맺었다.

‘디지털 콕핏’이 선두에 섰다. 중국 전기차 생산업체 베이징일렉트릭비히클(BJEV)의 신형 모델 ‘아크폭스’가 하만이 만든 디지털 콕핏을 탑재했다. 디지털 콕핏은 차량에 계기반과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등을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프리미엄 자동차 핵심 요소로 꼽힌다.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인기도 높았다. 중국 자동차 업체인 창청자동차와 독일 BMW가 하만이 만든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창청자동차는 사이버 보안과 내비게이션 자동 무선 업데이트(OTA, Over The Air Update) 솔루션도 제공하기로 했다.

자동차용 이더넷·HMA((Human-



삼성전자가 지난 CES 2019에서 공개한 디지털 콕핏. /삼성전자

Machine Interface) 소프트웨어는 중국 리딩 아이디어에 제공된다. 외부 통신뿐 아니라 운전자와 차량 간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장치다.

이에 따라 하만이 삼성전자 실적에 기여하는 비중도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만은 2017년 3월 삼성전자에 80억달러에 인수돼 미래 먹거리인 전장 사업 핵심으로 역할해왔다.

지난해 매출액이 8358177억원으로 삼성전자(243577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이지만, 2025년까지 22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김재용 기자 juk@

제약·바이오, 社債 발행 R&D 자금 조달

대웅제약 1000억 만기 사채 차환
한독 300억 차환·200억 매입대금
신라젠 1100억 ‘팩사백’ 임상비용
인트론바이오 GMP설비 등 구축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회사채를 발행 등을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섰다.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 비용과 시설투자 자금으로 투입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최근 1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 관련 자금은 오는 28일 만기가 도래하는 1000억원 사채(제9회 무보증 사채) 차환에 쓰인다. 지난 2016년 cGMP 기준을 충족하는 충북 오송 신공장 건설에 투입하기 위해 발행한 사채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매출액이 1조원을 넘어섰지만 오송 신공장 가동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등의 부담으로

15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한독은 지난 3월 공모채 발행을 통해 50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조달 자금 중 300억원만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의 차환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00억원은 사노피 싱가포르 등에서 의약품 원자재와 상품 매입대금 결제로 사용하게 된다.

신라젠은 지난 달 1100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지난해 신라젠 매출액 7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관련 자금은 신라젠이 개발 중인 ‘팩사백’의 임상비용에 투입될 예정이다. 신라젠은 지난해 연구개발 비용으로 379억원을 투입했다. 매출액의 475%에 달한다.

인트론바이오는 최근 3차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4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했다. 인트론바이오는 이 자금을 투자해 GMP 설비 및 연구센터와 신약개발 센터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메디포스트 역시 지난 달 전환사채 발행으로 400억원을 조달했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은 차세대줄기세포기술인 ‘스텝셀’을 이용한 주사형 퇴행성관절염치료제 국내 임상과 줄기세포치료제 카티스팀의 일본 임상에 투입된다. 또 카티스팀의 급격한 매출증가에 따른 GMP시설 증축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메디포스트는 지난해 제대혈은행, 카티스팀의 판매로 443억원의 매출을 냈으나, 연구개발비 부담에 68억원 영업적자와 21억원의 손실실을 기록한 바 있다.

대화제약은 지난 달 시설투자와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 200억원을 끌어모았고 항암제 개발 기업 에이치엘비도 올해 초 전환사채를 발행해 200억원의 바이오사업 운영자금 등을 조달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